

재해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 환경을 책임지는 삼성 방재 연구소

이번 탐방은 분야별 전문인력과 첨단 장비를 통한 선진 방재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자산 보호 및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위험관리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삼성방재연구소를 방문하였다.





삼성방재연구소 '김용달' 소장

설립 배경 및 역할

삼성방재연구소의 설립은 지난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재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다'는 공익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사로는 처음으로 삼성화재에 가입한 보험대상물에 대해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5년 위험관리연구소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업의 안정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화재·폭발뿐 아니라 화학공장, 건설공사, 배상책임 등 기업의 다양한 위험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도입하였다. 한편,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대규모 사회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지난해 말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진해일로 대규모 인명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그 피해가 커짐에 따라, 올해에는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재난방재 등으로 그 활동분야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구성 및 주요 업무

연구소에는 미국 인텔사에서 10년간 반도체 산업의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온 첨단산업의 최고 방재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스티븐 폭스, 미국소방기술사이자 35년 경력의 제임스 듀이 자문역 등 외국인 방재전문가와, 지진해일과 홍수 분야의 박사인력 등 4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자격현황을 살펴보면 소방 및 토목 분야의 기술사 4명과 소방, 환경, 산업안전 등 분야에 기사자격이 11종 34개에 이르고 있으며, 해외 자격으로 미국의 공인위험관리사(ARM) 5명,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 23명 등 총 19개종 70여 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김용달 소장은 소방기술사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험관리 분야에서만 23년 경력의 베테랑이면서도 얼마 전 시립대학교의 방재



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만학도로, 직원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업무는 화재안전, 건설안전, 화학안전, 자연재해, PL(Product Liability), 물류 등 6개 분야로, 안전진단·컨설팅을 수행하며 새로운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는 등 위험관리 업무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발 전 방 향

최근 방재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상호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및 서울시립대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산·학 방재활동 연구제휴 협약」을 맺은 연구소는 먼저,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된 각종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심도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적 재난예방 관련 정책에 대해 민간부문의 기술자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학계, 언론계의 방재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고, 국내외 방재전문 기관과의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말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진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해일인 ‘쓰나미’와 홍수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새로이 영입하여 연구소 내에 자연재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해외 방재전문가들로 구성된 반도체 전담팀과 Resource팀을 신설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신종 리스크 컨설팅 기법을 개발·제공하는 등 특화된 분야의 3개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위험관리 및 방재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동남아 등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생산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에서의 방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 회 에 바 라 는 점

“협회는 설립 이래 선진 방재기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 낙후되었던 한국의 방재업계를 선도하여 왔으며, 손해보험업계 위험관리 분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말하는 이병칠 선임연구원은 지난 32년 동안 협회가 선도해 온 화재예방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거대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 위험과 관련해서도 선진 방재기술 도입과 예방기법의 개발 등에 협회가 앞장 서 주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올 1월 명실상부한 민간 방재연구소로 새로이 출범한 삼성방재연구소가 분야별로 특화된 위험진단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재난없는 쾌적한 기업 환경 구축과 안전 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번 탐방을 마쳤다. (☎)